

# 몸을 위한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 생명의 사역

성경: 요일 5:14-17, 고후 3:6, 4:1, 12, 롬 2:13

### I.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은 생명의 사역이 필요하다 — 요일 5:14-17, 고후 3:6, 4:1, 12.

- A. 사역은 조성에 근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도달하신 것과 획득하신 것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 엡 3:8, 3:17.
  - 1. 사역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조성된 결과로 산출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역을 갖는 유일한 길이다.
  - 2.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조성된 것이다 — 고후 4:12.
  - 3.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이신 그 영은 신성한 생명,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사도들과 다른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시어, 그들을 새 언약, 곧 생명의 언약의 사역자들로 만드신다. 따라서 그들의 사역은 삼일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생명의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역이다 — 고후 3:6, 고전 15:45하, 롬 8:2, 11.
  - 4.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사역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義)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롬 5:17, 21.
- B.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한다 — 고후 1:8-10.
- C. 성경을 결론짓는 사역인 사도 요한의 사역은 생명의 보수하는 사역이다 — 마 4:21, 요 1:4, 10:10, 11:25, 20:31.

### II.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는 이 생명을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요일 1:2, 5:14-17.

- A.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넘치는 여분의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비축된 것으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요일 5:16.
- B.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구하는 사람'과 '생명을 주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 곧 그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에 관해 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1.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며 주님과 하나인데,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자 통로가 된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 고전 6:17, 요일 1:3, 7.
  - 2.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생명 안에 거하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행하며 처신해야 한다 — 요 15:4-5, 7, 요일 1:1-7.
  - 3.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누려야 하며, 영원한 생명이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이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 요일 5:16.

III. 생명의 사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성도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그분을 그들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도록 격려해야 한다 — 렘 2:13, 계 7:17.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생수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시어 그분의 선민의 누림을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시는 것이다 — 렘 2:13, 시 36:8-9.

1.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생수의 원천, 곧 우리 생활의 유일한 근원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 — 롬 11:36.

a.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이 그분 자신 이외의 그 무엇도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 고전 8:6, 렘 2:13.

b.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취하여,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 롬 11:36.

2.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목표는, 내적으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외적으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이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단체적인 한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산다 — 창 1:26, 엡 1:10, 3:9, 4:16.

3. 하나님께서 생수의 원천이 되신 목표는 그분의 증가인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인데, 이 교회는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충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마음의 갈망이자 큰 기쁨이다 — 엡 1:5, 9, 22-23.

a.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민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셔야 하며,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위해 한 배필, 곧 한 신부를 산출하는 것이다 — 요 3:29상, 4:14, 계 19:7-8.

b.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이 마실 수 있도록 생수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그분께서 증가되시고 확장되시려는 것이다 — 렘 2:13.

c.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생수로서 분배하여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증가, 곧 그분의 확장을 산출하는 것이다 — 골 2:19.

d.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증가인 교회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확장, 곧 그분의 충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 요 4:14, 3:29상, 고전 12:12-13.

e.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증가로 만들 수 없다 — 계 22:1, 17.

4.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어,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분배를 얻게 될 것이다 — 렘 17:7-8.

5.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심으로써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 — 요 4:14, 7:37, 렘 2:13.

B.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셨다 — 요 7:37-39, 롬 8:11.

1.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여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넣으시는 것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 롬 8:2, 6, 10-11.

2.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한 표현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 계 21:9-10, 22:1.

- C. 우리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가하심으로 그분의 배필을 통해 그분의 표현을 가지시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 — 램 2:13, 고전 12:13, 요 4:14.
1.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 시 36:8-9.
  2.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마실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하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며,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으로 구성되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 곧 그분의 배필이 됨으로써,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완결한다 — 요 3:15, 벧후 1:4, 엡 1:5, 9, 5:27.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사역

고린도후서는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의 죽이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함으로 조성되고 산출되고 형성된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역은 단지 은사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감동적으로 말하고 많은 훌륭한 예화와 격언을 말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다만 은사이다. 오늘날 교회, 곧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역이다. 몸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철저히 새겨진 형제자매들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을 지성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들의 영과 그들의 내적 전 존재 안에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역 가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기를 기대한다. 결국에는 이러한 성도들이 가는 지역에서 생명의 성장과 성도들의 건축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가르침과 많은 지식과 많은 은사가 있지만, 사역은 크게 부족하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종류의 사역을 갈망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사에 대한 저의 관념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저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어떠함이 제게 새겨지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요. 다른 이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신성한 요소를 새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역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교회는 은사들보다는 사역이 더욱더 필요하다.

### 하나님에 의해 격려받음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음과 같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들을 여러분도 견디게 해 줍니다.” 이 구절을 반복해서 기도로 읽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사역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다른 이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를 격려하신다. 4절의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격려 혹은 위안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의해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격려받고 위안받는 것을 의미한다.

### 십자가의 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위로와 새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체험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그리스도의 어떤 풍성을 소유하는 것은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역은 다른 일로는 산출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산출된다.

바울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치게 압박을 받는’(1:8, 흠정역), 혹은 ‘극심한 압박을 받는’ 상황 안으로 넣으셨다고 말한다. 당신은 왜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나 자녀와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육신의 몸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 책에 ‘극심한 압박’을 받았거나 ‘힘에 겹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주의한 일이 있었는가? 당신은 압박을 받았겠지만 극심한 압박을 받았었는가? 이것은 십자가의 일이 당신을 끝내고 당신을 종결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후 1:8)고 말한다. 많은 젊은 형제들이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해서 압박하실 것이고 당신은 고난을 견디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주님, 저는 견디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압박은 제가 질 수 있는 힘보다 지나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고난 아래 있을 때 당신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 그것을 견디려고 하지 말라. 결코 스스로 그것을 정복하려 하지 말라. 당신은 결국 주님께서 당신의 힘에 겹도록 당신을 압박하시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압박이 올 때 당신은 당신의 모든 힘, 곧 육신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힘을 사용할수록 당신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당신은 압박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훨씬 지나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의 힘보다 지나치게 압박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자!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져서 삶을 단념했다고 말한 뒤에,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고후 1:9)라고 말한다. 사도들이 환난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그들이 당한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그 대답이나 단정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죽음의 체험은 우리를 부활의 체험 안으로 인도한다. 부활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요 11:25). 십자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끝내는 것이다. 십자가를 체험한 결과는 항상 부활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산출되고 형성된다(고후 1:4-6). 이러한 사실은 4장 7절부터 12절까지에서 더 자세하게 묘사된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끝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종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러한 사실이 새겨지려면 얼마만큼의 체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영적 성취조차도 끝내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당신은 영적인 성취를 대단히 신뢰할지 모

르지만 그것조차도 끝나야 한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양심 안에서 자신이 이 땅 위에서 육체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고 활동하고 존재하였음을 증언하였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가 상황을 처리하는 영리한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지혜는 우리의 육체에서 나온다. 육체의 지혜는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했다고 말한다. 단일성은 또한 단순함을 의미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단일하시다. 육체 안에, 혼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함이 아닌 복잡함을 갖게 된다. 혼적인 사람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 영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순해진다. 우리가 더욱더 영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순하고 단일하게 된다. 우리는 동기에서 단일하고 목표에서 단일하며 우리의 모든 갈망에 있어서 단일하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단일성 혹은 단순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순수성이 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의해 처리를 받아서 십자가가 우리를 끝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동기와 목표에 있어서 매우 단순하고 단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 기름 부음과 도장 찍음과 그 영의 보증

십자가가 일하여 당신의 존재를 관통할 때 이 일은 부활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며 그 영의 보증, 곧 미리 맛봄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이 십자가의 일은 기름 부음과 도장 찍음과 그 영의 보증을 위한 것이다. 사역은 이러한 체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과 도장 찍음과 그 영의 보증, 곧 미리 맛봄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일이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끝나지 않았다면 내적인 기름 부음과 도장 찍음을 주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내적인 그 영의 보증을 누리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십자가의 일은 내적인 기름 부음과 도장 찍음과 그 영의 보증의 내적인 누림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 영의 보증을 누리고 그 영의 기름 부음과 도장 찍음을 체험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일이 필요하다.

기름 부음이 첫째이고 도장 찍음이 둘째이며 보증이 셋째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음은 페인트칠과 같다. 페인트공이 페인트를 더 많이 칠할수록, 페인트는 칠해진 물체 위에 더 많이 더해진다. 오늘날 하나님은 신성한 페인트공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칠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자신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에게 더 많이 칠하실수록, 하나님의 요소는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은 그분의

모든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신성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의 요소만 갖고 있었다. 우리가 믿는 이가 된 이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요소를 우리의 모든 속 부분 안으로 분배받고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신성한 요소와 완전히 연합되어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도장 찍음은 신성한 요소로 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한다. 만일 내가 도장을 종이 위에 찍는다면 도장과 동일한 형상이 종이 위에 남게 된다. 도장 찍음은 우리에게 모양 혹은 형상을 가져다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도장 찍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도장 찍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영의 보증을 갖고 있다. 그 영의 보증은 하나님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것은 견본과 같이 장래 하나님을 충만히 맛볼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일종의 보증금 혹은 미리 맛봄으로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분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며,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일종의 보증금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넣으셨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내적인 기름 부음을 실재화하는 방법과 내적인 도장 찍음과 동역하는 방법과 성령의 내적인 보증과 보증금과 약조와 미리 맛봄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일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배운다. 십자가는 우리를 끝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이제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시다. 저는 제 생명을 포기합니다. 저는 거꾸러졌습니다. 저는 끝났습시다.” 그 즉시 우리는 내적인 기름 부음과 내적인 도장 찍음과 그 영의 내적인 보증까지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체험과 함께 기름 부으시는 영을, 기름 부음과 도장 찍음과 보증의 세 방면으로 체험함으로 산출된다. 우리는 내적인 기름 부음과 도장 찍음과 보증(미리 맛봄)과 함께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날 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활을 베푸셔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참된 사역을 갖기 위하여 우리를 끝내는 십자가의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내적인 기름 부음과 도장 찍음과 그 영의 보증을 체험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란다.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15-22쪽)*